

# 하남의 전통 민속놀이



두미강(팔당댐과 팔당대교 사이 협곡)

하남은 옛 광주의 치소(治所)가 고골에 위치하고 있었고, 한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배를 이용한 수운(水運)이 발달하였고, 이러한 특징이 지명이나 민속놀이에도 반영되었다. 나루터에서 내려진 물자가 보관된 창고가 있는 모퉁이 마을인 '창우동(倉隅洞, 창모루)', '하사창(下司倉)', '상사창(上司倉)' 등의 지명과 '세미(稅米)길' 등은 남한산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지명이라 할 수 있다. 세미(稅米)길은 옛날에 한강을 이용한 운송이 활발하였을 때 창우 나루터와 둔지(선동) 나루터가 바로 남한산성 관아로 가는 각종 물품이 모여져 달구지나 등짐으로 다시 운반되었던 길이다. 그 옛길을 하남 사람들은 세미길이라 하고 각종 물품이 창우 나루터 → 동경주 → 바깥샘재 → 안샘재 → 골말 → 하사창 → 중터말 → 상사창(연자방아) → 법화골(법화암절터 및 부도군) → 남한산성 북문으로 이어지는 길이 현재에도 등



초동목도 싸움놀이

산로로 이용되고 있다. 하남의 전통 민속놀이는 지명의 유래와 더불어 다른 특징적인 민속놀이가 전해오고 있다.

하남의 민속놀이에는 거북놀이, 초동목도(樵童木道)싸움, 농악, 두미강 잉어몰이 12마당, 지경다지기 등에서 특징적인 놀이는 초동목도싸움과 두미강 잉어몰이 12마당이다.

초동목도 싸움은 남한산 나무꾼(초동)들의 길싸움 놀이이다. 춘궁동과 천현동은 주변의 남한산이나 금암산 등에서 땀감을 팔아 생활하던 마을인데, 산으로 오르는 길이 가파르고 좁아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이용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 그래서 길(나뭇길)을 먼저 이용하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 여러 마을이 서로가 상대방보다 먼저 길을 이용하기 위한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다. 이 같은 삶의 환경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남한산 나무꾼(초동) 길싸움 놀이가 이웃 마을로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새 해를 맞는 연초가 되면 마을 간 기(旗) 싸움과 혼합

되어 하나의 특징적인 형태의 민속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즉 연초에 기 싸움을 겸한 민속놀이를 통해 마을 젊은이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1년간 땀감 채취를 먼저 할 권리 또한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남한산 나무꾼(초동) 길싸움 놀이는 지역적 특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특이한 민속으로서 지역 내 생활환경을 반영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농기싸움의 형태는 농작에 있어서 길을 오갈 때 서로가 길에서 마주치게 되면 먼저 하기가 기수를 숙여서 배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서로 더 숙이라고 하거나 빨리 응답하라고 고함치는 과정에서 급기야는 서로 상대부락의 농기에 달려들어 기의 상단에 장식으로 꽂아놓은 꿩 장목을 빼앗게 되는 것인데 꿩 장목은 물론이려니와 기(旗)와 농악기까지도 빼앗아가는 경우가 허다해 농기싸움에 강한 동리의 기가 보이면 마주치기를 꺼려해 일부러 돌아가기도 했다고 한다. 여기서 기의 서열을 정하는 방법은 농악대가 먼저 구성된 순서로 정하는 방법과 동리의 대소에 따라 정하는 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에는 반드시 상동의 기라 하더라도 그 동리에 지체 높은 양반이 살고 있으면 그 부락의 기가 상기가 된다. 또 다른 방식은 정초에 줄다리기, 장치기, 기 싸움 등 마을 간 민속놀이를 통해 이긴 부락의 기가 일 년 동안 상기가 되는 방법을 택한다. 하남시에서는 신평리와 장대마을 간에 기 싸움이 자주 연희되었으며 이 외에도 현 감북동, 천현동, 춘궁동 등 여러 곳에서 기 싸움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남한산 나무꾼(초동) 길싸움 놀이의 형식은 기 싸움과 다름이 없으나 농작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농사 이외의 땀감을 하러 다니는 길을 차지하기 위함과 또한 풍농의 추구하고 마을의 안녕을 바라는 기원의 성격을 함께 띠고 있음이 특이하다. 이 놀이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는 금지되기도 하였다가 해방이후 다시 재현되어 40~50여 년 전만 하여도 크고 작은 형태로 연희되어 흔히 볼 수 있었으나, 요즘에는 나무로 땀감을 이용하지 않다 보니 집단적으로 나무를 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한때는 10~16세의 나무꾼(초동)들에 의해서 기 뺏기 길 싸움으로 연희된 적도 있으나 산업화 이후 도시 중심의 생활이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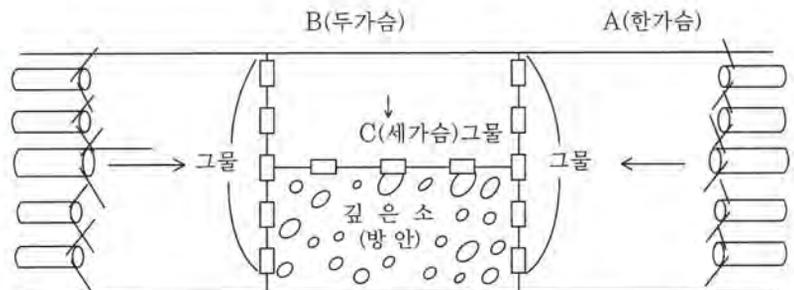
초동목도 싸움놀이

편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농과 함께 도시로 이주하면서 연희 풍습이 사라질 위기를 맞았다. 이 상황에서 하남시 승격 이후 시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하남문화원(원장 양인석)의 노력으로 복원되어 재현되고 있다.

어떤 민속을 막론하고 한 마당 어우러짐의 뒤풀이는 그 어울림 속에서 상부상조의 미덕과 대동단결의 힘이 솟는 것으로 이러한 민속마당놀이가 갖는 원초적 맥이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우리는 외세의 갖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버틴 것이며, 작금에 들어 이러한 한마당 뒤풀이가 사라지면서 점차 공동체라는 의식을 잃고 개인주의만 팽배해진 것으로 보인다.

거북놀이는 경기, 충청, 강원도 지역에서 행해져 왔는데, 하남지역의 거북놀이는 이천, 여주에서 성행하였던 거북놀이처럼 복을 비는 놀이다. 거북이가 장수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무병장수를 빌고, 마을의 잡귀를 쫓아 복이 온다고 믿었으므로 집집마다 다투어 거북을 맞이하였다. 상산곡 마을과 창우동 마을 일대에서 전승되고 있는 거북놀이는 음력 8월 15일 한가위 날에 행해지는 대표적인 민속놀이이다. 이 놀이는 먼저 껍질이 벗겨진 수수대로 거북이 모양을 만들고 그 속의 앞쪽에 한 사람, 뒤쪽에 두 사람이 들어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술과 음식을 대접받고 농악과 함께 노래와 춤을 추는 놀이이다. 이때 마을 사람 모두가 각 가정의 복을 함께 빌어준다. 이와 비슷한 놀이로는 중부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소맥이놀이'가 있다. 이 놀이는 명석 안에 두 사람이 들어가 소의 형상으로 역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이다.

하남지역만의 특성을 지닌 민속놀이는 바로 <두미강 12마당 잉어몰이 잡이>라고 할 수 있다. 두미강은 창우동과 팔당댐 앞의 배알미동에 걸쳐 있는 한강의 일



두미강 잉어몰이 잡이

부분으로 하남의 검단산과 남양주의 예봉산을 끼고 흐르는 협곡 구간이다. 두 산이 모두 높고 경사가 저서 일조 시간이 짧고 겨울철에는 세찬 바람이 불어 강물이 일찍 얼고 늦게 녹아 결빙 기간이 길다. 이런 자연환경 때문에 두미강은 겨울철 잉어낚시에 적합한 곳이다. 낚시꾼들은 얼음구멍을 뚫고 미끼도 없는 삼봉낚시를 담귀 잉어를 잡아 올린다. 두미강이 꽁꽁 얼면, 강 주변의 배알미·창우동·더우개·바맹이에서 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주민들이 잉어몰이에 대한 의논을 한다. 먼저 잉어몰이 날짜를 정하고, 잉어몰이잡이 열 두 마당 가운데 첫 번째 마당 장소를 정한다. 또 '영자(머리괴의 우두머리)'를 뽑는데, 영자가 된 사람은 머리괴(얼음 위에서 나무토막으로 잉어몰이 하는 사람, 머리치는 사람) 18~20명 정도를 품삯을 주고 고용하여 관리한다. 그 다음, 그물주를 정하여 얼음을 깨는 인원과 그물을 치고 걷는 데 필요한 인원의 확보와 관리를 맡긴다.

그물주는 그물 칠 곳을 골라 그물 닷 길이(약5m)만큼의 간격으로 얼음구멍을 내고, 그물닷과 걸인대를 이용해 그물을 한쪽 얼음구멍에서부터 얼음 구멍 사이 사이를 연결하여 반대쪽 끝까지 보낸다. 그런 다음 얼음구멍 위로 나온 그물 윗부분을 잡아당겨 고정시켜 놓는다. 여기서 두 가슴 그물을 바닥 표면에 닿도록 내려놓는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겨울철에 잉어들이 항상 강 바닥에서 생활하고 이동할 때도 바닥으로 다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3개의 그물을 같은 방법으로 준비한 뒤, 영자의 지시에 따라 위쪽 머리괴들이 나무토막을 끌며 얼음을 두드리면서 잉어를 몰아온다. 이때 나무토막 두드리는 소리가 얼음을 쪼개듯 퐁음을 내기 때문에, 잉어들은 떼를 지어 몰려 내려온다. 한가슴까지 몰아 내려오면 그물을 준비한 사람들은 재빠르게 그물을 내려서 친다. 그 다음 두 가슴 그물을 잡아당겨 얼음구멍 위에 고정시킨다. 아래쪽 머리괴들이 같은 방법으로 몰아오면 두 가슴 그물을 내리고 깊은 소 마당 반대쪽으로 머리치는 사람들이 모여 본바탕(마당)쪽으로 같은 방법으로 세 가슴 그물까지 몬다. 최종적으로 중심부의 그물을 내리면, 잉어들은 깊은 소 마당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3면을 그물로 막은 깊은 소 마당을 일명 '방안'이라고 한다. 다음날 그물주가 그물을 걷는데 그물에 걸려나와 잡히는 고기가 몇 자루씩 나오기도 했다 한다. 잉어몰이 하는 날에는 인근 주민들이나 잉어장사꾼들이 몰려와 일시에 장터를 이룬다. 두미강은 팔당댐이 생긴 후로, 얼음이 얼지 않아 잉어몰이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나 지금도 잉어떼가 산란을 하러 떼를 지어 몰려오는 곳이기도 하다.